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7호 [루게 제24405호] 주체102(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

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 백두의 혈통을 이어 우리 당을 끝까지 받들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원산시에 높이 모시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뜻깊은 12월 24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원산시에 높이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리러모시며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의 혈통을 뜻깊이 이어나가는 강원도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로 된다.

동상들은 한손을 허리에 얹고서 단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사연깊은 수수한 야전술사자락을 날리시며 백두산대국의 미래를 촉박해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이 22일에 진행되었다.

제막식장은 강원땅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주시려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인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었다.

제막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제막식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발이 드리운 대형구두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명동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고 쓴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동상향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로두철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원도회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판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공헌한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돌격대원들, 도내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동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을 당과 국가, 군대, 강원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제막모들이 벗겨지자 주체의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천연히 빛을 뿌리었다.

하늘땅을 진감하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고무총선들이 날아올라 12월의 하늘가를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품종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강원도와 도의 당, 정전기관,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쪼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위업, 선군위업수행에 고귀한 한생을 바치시어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안고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천만군인이 당의 전투적소마라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울려퍼진 것을 빛나게 계속하기 위한 총동원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제막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신 이 시각 우리가 얼마나 결출한 위인들을 수령으로 명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 이끄시고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한평생 인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 내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략과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로 올려세우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분배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용 떨치고 이 땅우에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강원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이 뜨겁게 आरो세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강원땅을 찾으시어 이곳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불려일으키신 때로부터 수많은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도맡아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명도에 의하

여 나라였던 지난날 세계적인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강원땅은 짧은 기간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고장으로 전변되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현대적인 공장들과 사회주의농촌마을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유원지, 세계적인 명승지들이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강원땅에 일어난 전변의 역사에는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주시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나날에 강원도를 끊임없이 찾으시어 도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명과 오성산을 비롯한 최전연에 조선시대의 길을 이어가시며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길이 있어 강원땅에서는 토지정리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고 원산청년발전소와 원산제철소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이 수많은 일떠서으며 인민들이 그 덕을 보며 보람찬 삶을 누리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3 번 으 로 계 속



#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귀감으로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 어머님은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와 더불어 영생하신다

회령의 오산덕기사에서 백두산녀장군의 탄생을 알리며 눈꽃이 소리없이 날리던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96돌기의 년월이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장 충실한 동지이시고 전유신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그리움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 해도 더욱 불타오른다.

친위전사의 변함없는 자세로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와 함께 계시는 전설적호위장군 김정숙동지,

부피두터운 책자를 쓰신적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글 한권 남기신적 없었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피어린 자욱자욱의 신향으로 가르치신 백두산녀장군의 불같은 생애가 추락봉마루의 휘날리는 붉은기 마당 오늘날도 조국과 인민을 참다운 삶과 투쟁으로 이끌어주고있는것 아닌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부사적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백옥과도 같은것이였다.

《...이 총을 잡고 김일성장군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씩을 백발로 알고 원수를 쓰겠습니다.》

처창조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붉은기아래서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으며 하신 이 맹세를 지켜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생을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생애, 방패로 사시였다.

항일의 결전장들, 그 사신의 마당에서 사령부도 향하는 원수의 총구가 백천이라 해도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된다것이 김정숙동지의 각오였고 자신의 한몸이 그대로 원수의 총구를 막아내는 억척의 방탄벽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의지였다.

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서하기 전투때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을 목숨바쳐 보위하기 위하여 달려가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 하를 앞에 차받친다. 본사기자 정순애 찍음

같은 불과 몇발자국이 적들을 쏘아놓던 순간은 몇초밖에 안된다. 그러나 그 순간은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순간으로 력사의 한페이지에 금문자로 길이 빛나고있다.

가장 엄혹한 순간의 영웅적외훈은 결코 우연히 이룩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을 불같은 헌신으로 심장을 뚫고 온몸을 강건하게 바치는 참된 혁명가들만이 발휘할수 있는것이다.

주제 25(1936)년 8월 무송 현성전투때의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지를 부르시어 내대원들과 함께 잘루

목을 차지하고 식사준비를 할때 대 임무를 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지체없이 잘루 목을 차지한 다음 전투정황을 예리하게 살피시였다. 이때 한계 소대의 적들이 잘루목을 차지하려고 은밀히 기어올랐고있다. 잘루목을 지키느라 못지키나 하는것은 사령부와 전부대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싸장을 틀어잡으시고 내대원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작란이 귀찮은 스키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오직 사령부의 안전만을 생각하시였다.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김정숙동지의 웅장소리는 전장에 메아리치며 대원들을 결사옹위정신으로 불러일으켰으며 마침내 적들은 전멸되였다.

어제 그때뿐이겠는가.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길에서 백두산녀장군께서 발휘하신 수령결사옹위의 정신은 항일의 건구들마다에 새겨져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때의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잊지 못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사신의 고비에서 여러번 기적적으로 살아날수 있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사람들속에서 널리 위외하고있는 《김정숙동지전기》 편찬에 참가한 한 력사가 이런 말이 있다.

《어머님의 로정을 따라가면서 불허했던 사실들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보고보니 어머니의 한생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백과사전! 이것이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한생에 대한 력사의 정중이다.

수령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충실성을 체질화하시였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정

치사상적으로, 혁명적신념으로 결사옹위하시였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를 준벌히 단죄하시던 김정숙동지의 음성이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쿵쿵 울린다.

《혁명의 배신자들, 타락분자들은 투쟁이 간고해지고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 가마면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높은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수령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충실성을 체질화하시였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정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머니의 혁명생애를 추외할 때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무한한 충실성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제 71(1982)년 12월 24일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6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몇 일군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일군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이에 대한 그리움을 터놓으면서 어머니처럼 한생을 빛내일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이였다. 우리 어머니는 늘 나에게 기를 들러주시던 존재였고 인민도 없다, 수령님을 든든히 보위하자면 총을 잘 쏘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쏘는 법을 배우주셨다 하시였다. 내가 총을 사수하는것도 어머니의 덕분이다. ...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믿음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한생을 불같이 수놓아오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자욱을

수령님에 대한 어머니의 충실성은 나의 광심을 비추보는 거울이기도 하다. 나는 일이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과 용기를 내곤 한다. 나는 동무들도 어머니처럼 어버이수령님을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추종하는데 받들어모시리라 믿는다. ...

어머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총대사령의 첩리로부터 시작하시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열정으로 승화시키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정녕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혁명이 자기 수명을 어떻게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실생활을 통하여 보여준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의 고귀한 한생이었으며 총대와 때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항일의 녀성영웅, 위대한 혁명가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김정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수하자!》라는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천절만겁의 생애를 이루고 산악같이 일떠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백두산녀장군께서 축복해주셨다.

주제 28(1939)년 여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한 내대원의 간호를 하실 때의 일이다. 열병으로 의식을 잃은 그를 위해 깊은 수면속에 홀로 남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야 하시였다. 하지만 동지를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희생은 최대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어 그이께서는 환자의 병치

추억깊은 밤의 정서를 더해주는듯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에 젖은 음성으로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너무도 짧았다고, 나는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그것이 늘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아픈 가슴을 달래시며 딸마리처럼 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고 수령님의 신념안에는 어머니의 첫째가는 생명이

### 소중한 추억

추억깊은 밤의 정서를 더해주는듯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회에 젖은 음성으로 우리 어머니의 한생은 너무도 짧았다고, 나는 어머니를 추억할 때마다 그것이 늘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아픈 가슴을 달래시며 딸마리처럼 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어머니의 삶의 전부였고 수령님의 신념안에는 어머니의 첫째가는 생명이

수면속에 홀로 남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를 위한 군의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식량과 약품을 구해들이는 군수관이 되어야 하시였다. 하지만 동지를 위해 바치는 헌신적인 희생은 최대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시어 그이께서는 환자의 병치

주제 37(1948)년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의 지령으로 평양학원에 있는 한 일군의 안내가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날 아침 들을 맞는 아들에게 입힐 새옷과 생일상을 차리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사기 위하여 평양에 올라온 그는 포탄속에 끼워넣었던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언제나 다심하신 그의 뜨거운 인정앞에 그 너성은 그일에 대하여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일때문에 너무 삼삼하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께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은은어진 생일상을 마추한 녀투사의 아들에게 앞날을 따듯이 축복해주시였다.

어린애는 그의 말씀을 알아듣지라도 한두캐드득거리며 귀염스러워 얼굴에 웃음꽃을 방글방글 피웠다.

전우의 얼굴에 비친 한결의 그늘을 보시고도 깊이 마음쓰시는 백두산녀장군의 혁명적우애와 뜨거운 인정미애에 녀성은 격정의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었다.

본사기자 리금분

12월은 우리 회령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축원의 달로, 환희와 기쁨의 달로만 년년이 새겨져왔다.

너무도 깊은 사연을 안고있는 이 달의 추억을 더듬을수록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더더욱 사무쳐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오른다.

주제 99(2010)년 12월 4일이였다.

사업상용무로 평양에 올라와있던 나(허영규)는 이날 밤 당중앙위원회 의 한 책임일군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책임비서동무, 오늘 회령시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부 부르시니 빨리 떠나야겠소.》

《예, 장군님께서요?!...》

순간 나는 몸을 꾸는것만 같아 한 동안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얼마후 내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특별비행기로 그이께서 불러주신 곳에 도착하니 한걸음 앞서 와있던 그의 책임일군이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드는것이였다.

《책임비서동무, 기뻐하십니까. 글세 회령시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령시를 잘 꾸렸다고, 회령면을 번번한 건설수단 없이 소망이만 가지고 건설하였다는데 정말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수고

### 주제시대를 빛내이시며 12월에 찾으신 어머니의 고향

한 책임비서동무를 어서 비행기로 데려다가 평가도 해주고 단고장도 맛보도록 해야겠다고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습니...》

《위대한 장군님!...》

나는 그만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나의 눈앞에는 우리 회령시를 돌아보시며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던 그는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숨뉘히 안겨졌다.

12월 4일, 이날 아침 민족적정서를 자아내며 조선적건물로 특색있게 일떠선 회령관앞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게 된 회령시일군들은 기쁨보다 먼저 눈물을 앞세웠다. 장군님께서 우리 회령시 인민들의 생활을 두고 마음을 놓지 못하시어 눈바람 세한 12월에 또다시 오셨다는 생각이 가슴에 마쳐왔기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팡팡 얼어붙은 대지를 녹일듯 한 따듯한 미소를 지으시며 회령관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나(김철호)는 가슴에 차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홀이 전시된 직면앞에서 먼저 도시형성상태에 대하여 설명해올렸다.

허영규, 김철호

안겨주신 은은어진 사랑의 집이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회령관이 멋있습니다. 회령관을 특색있게 잘 건설하였습니. 만점짜리입니다.》

회령관을 다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회령고려약공장에 이어 시안에 꾸려진 음식점까지도 향하셨습니다.

장군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가슴가득 느끼며 나는 그이께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시에 사회공양봉사당이 훌륭히 꾸려져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한다고, 장군님께서 받으셔야 할 인사를 지금 우리들이 받고있다고 감격에 넘쳐 말씀해올렸다.

사실 시민들에게 국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떡, 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봉사하는 종합적인 음식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회령관은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문명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던 장군님께서 우리 회령시민들에게

봉사하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오른 식탁으로 그이를 안내해드렸다.

그리고 음식점거리에 있는 봉사당의 원자재보장대책에 대하여서도 덧붙여 보고올렸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시에서는 사회공양봉사당을 훌륭히 꾸려준 당의 의도에 맞게 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청량유로점 일군이 그이께 당의 배려로 회령시에 음식점거리가 생겨나니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고, 모두들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이라고 하며 기뻐하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렸다.

시민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윽고 밖으로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청량유로점 일군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며 사랑의 기념사까지 읽어주시고 헤어지기 아쉬워 그날 따라서는 그들에게 손짓을 하시며

다닐까 추운데 어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라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해마다 이렇게 겨우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며 파로하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랑곳 없이도 감시 찬바람속에 서있는 그들을 녀려 해주시니 정녕 우리 인민들을 위하시는 그의 사랑은 한없이 다심하고 뜨거웠것이다.

나는 장군님의 이런 사랑을 회령시로가공공장에서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공장에 도착하시어 총각김치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김치와 순대, 빵류와 국수류, 각종 말림 등 수십여가지의 식료품들이 배속이 진렬되어있는 제품건설실에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진렬탁위에 놓인 백살구병졸임도 손수 들고 찬찬히 살펴보시는것이였다.

백살구병졸임과 단졸임은 우리 회령백살구가공공장에서 생산되어나오는 여러가지 가공품들중의 하나로서 회령시민들은 물론이 아니라 답사생들과 참관자들도까지도 관심하는 회령 특산품이다. 그래서 나는 장군님께

# 우리의 운명이신 김정은동지를 세상끝까지 충정다해 모셔갈 불같은 의지

## 새로 나온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에 대한 각계의 반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혁명의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 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며 탄복하고있습니다.》**

한편의 노래가 천만국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 주고있다. 당보 주제 102(2013)년 12월

**삼지연군 증충농장 제 1작업반 반장 강재선은** 포대편에서 서러뿔 활짝 핀 이 아침 우리는 《그이 없는 못살아》 노래를 부르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흙구이 전투장으로 발걸음 다그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한소절한소절 노래를 부를수록 눈곱이 절로 젖어든다.

지난 11월 말로 우리 군을 찾아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은정어린 물고기들 가족 실은 자동차들이 높고 험한 로터편을 넘어 우리 제대군민마음에도 도착하였을 때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목매어 추추치는 격경으로 눈물을 적시었다.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들으니 곁에

도 달려가 안기고싶은 우리 원수님의 품이 더욱 그리워지고 경애하는 그이를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가 이 가슴에 백두산악처럼 더욱 굳건해진다.

우리 증충농장의 제대군인 작업반원들은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다들들 감자농사를 갈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모습과 함께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가 편집된 당보를 받아안았을 때 우리 청년들세대원들의 심정은 이렇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가면서 백두산선군청년들격대 평안북도려단 증대장장관께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는 우리 청년들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였다. 진정 우리 마음 그이께서 제일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 행복 지켜주신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백두산 선군청년발전건설사업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를 비롯한 여러 중요건설대상들에 달려나 가 귀중한 청소년기를 아끼없이 바치고있는데 그들이 정말 대견하고 장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고 발전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한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정미리분공장 단조작업반** 로동자 강국화는 여기 북방의 한낱 철산봉에도 우리 인민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한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가 높이 울리고있다

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신문과 텔레비전화면을 통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봐올 때마다 격정으로 눈물짓던 우리들이다.

철산봉에서 일하는 우리의 마음속생각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 주시며 평범한 평범부의 생활문제에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는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무산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굳게 믿고 받들며 그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그이 없는 못살아》, 우리는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최충진심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2. 8비탈론련합기업소 기사장 현동삼**은 우리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은 곧 위대한 장군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보에 새로 나온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가 실린것을 보고 가슴이 쿵 하고 눈곱이 젖어드는것을 아쩔수 없었다. 우리모두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노래가 웅군 한변에 가슴우뚝하게 편집되었다.

가사에도 있는것처럼 우리의 운명은 김정은동지이다. 그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이 없이는 조국도 미래도 없다.

현대적인 비탈론생산기지로서 세 세기가 다시 태어난 2. 8비탈론련합기업소의 운명도 미래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를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

우리 비탈론로동계급은 이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경제건설구상을 말로써가 아니라 몸소 실천하도록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합성작업반 반장 함용길**은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요즘은 하루밤을 자고나면 우리 인민의 심금을 울려주는 시대의 명곡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있다.

《그이 없는 못살아》, 노래의 제목을 보는 순간 환희와 격동의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노래가 실린 당보를 펼쳐고 우리 작업반원들은 저저마다 감탄을 터뜨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 구절구절 우리 로동계급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시어들에서 우리는 원수님을 우리러 처치는 온 나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우리 흥남의 로동계급은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높이 부르며 농업전선에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해 증산의 동물을 더욱 거세게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슬금도 함께 하는 흥남로동계급은 주제비료증산으로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간직하며 받들어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 직장장 문정민**은 우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부르며 울려퍼지는 목소리를 듣고는 감동하듯 울려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를 부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호와 호모의 마음이 우리의 온넛을 틀어잡는다.

참으로 사상과 령도, 덕담에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같은 미소가 어려우며 미약동동같은 자신에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다정함은 잊어지지 않을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올해에도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기쁘게 어려웠던 미약동동 같은 한 가솔을 안아줄수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농장원들은 모든 소원과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싶어서 더 당을 걸사위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먼저 떠오른것은 황철로동계급을 그토록 믿어주시고 내세워 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심정을 지니고 있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이다.

우리 인민을 한몸에 안아주시는 친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꿈을 현실로 펼쳐주시는 그 손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오늘의 황철이 있고 우리의 더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이 황철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바로 경애하는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모두 맡기고 사는 우리 로동계급이어서 정녕 그이 없이는 하루, 한순간도 살수 없다.

천기도 불길과 같이 세차게 뒤흔어지는 황철로동계급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이 노래를 영원히 높이 부르며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을 강철기둥으로 굳건히 떠받들어나가겠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 직장장 문정민**은 우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부르며 울려퍼지는 목소리를 듣고는 감동하듯 울려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를 부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호와 호모의 마음이 우리의 온넛을 틀어잡는다.

참으로 사상과 령도, 덕담에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같은 미소가 어려우며 미약동동같은 자신에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다정함은 잊어지지 않을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올해에도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기쁘게 어려웠던 미약동동 같은 한 가솔을 안아줄수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농장원들은 모든 소원과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싶어서 더 당을 걸사위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그이 없는 못살아》, 노래의 제목을 보는 순간 환희와 격동의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노래가 실린 당보를 펼쳐고 우리 작업반원들은 저저마다 감탄을 터뜨렸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 구절구절 우리 로동계급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시어들에서 우리는 원수님을 우리러 처치는 온 나라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우리 흥남의 로동계급은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높이 부르며 농업전선에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해 증산의 동물을 더욱 거세게 울려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슬금도 함께 하는 흥남로동계급은 주제비료증산으로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간직하며 받들어나가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 직장장 문정민**은 우리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유압기구작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부르며 울려퍼지는 목소리를 듣고는 감동하듯 울려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를 부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호와 호모의 마음이 우리의 온넛을 틀어잡는다.

참으로 사상과 령도, 덕담에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같은 미소가 어려우며 미약동동같은 자신에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다정함은 잊어지지 않을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올해에도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기쁘게 어려웠던 미약동동 같은 한 가솔을 안아줄수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농장원들은 모든 소원과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싶어서 더 당을 걸사위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제 관직장 직장장 김선국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당보에 실린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높이 부르며 우리의 운명이신 원수님에 대해 모든 소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주제혁명업무를 끝까지 완성해 갈 결의에 충만하였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받들며 이 세상 끝까지 충정다해 모시고 살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넘치는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일터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즐겨부르고있다.

우리 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부르며 우리는 강성국가건설을 강철기둥으로 굳건히 떠받들어나가겠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산제 2작업반 분조장 정순식**은 새로 나온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가 미곡밭에 울려퍼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는 나오자마자 우리 농장원들의 마음을 꼭 그어잡고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노래가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꽃피워주시는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들수목 우리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햇빛 같은 미소가 어려우며 미약동동같은 자신에 정든 농장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다정함은 잊어지지 않을것만 같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올해에도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기쁘게 어려웠던 미약동동 같은 한 가솔을 안아줄수 있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농장원들은 모든 소원과 꿈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모시고 싶어서 더 당을 걸사위할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다듬는다.



노래 《그이 없는 못살아》를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는 평안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찍음

**1 면 에서 계속**

비밀한 예지와 세련된 령도자 이 땅위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만대만대에 길이 전해가려는 강인도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은 수령영생위업의 새 령자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돌격대원들을 비롯한 도안의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방대한 공사과제를 일당서 수행함으로써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짧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모시었다.

강인땅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리의 빛나는 결실이 고결도인민들의 혁명업적을 현명한 길이 빛내이려는 강인도인민들의 철석같은 맹세의 불출이다.

연설자는 천만국민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 불후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이 땅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 주신다는것을 명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제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연대로 빛내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백두산대군의 위대한 령도로 높이 받들고 높이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어나갈 때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림

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할것이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하고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충직하게 받들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본계연설을 지켜진 높은 혁명적자각을 가지고 강인땅을 불패의 군민철용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펼쳐나가야 할것이다.

**《마시령속도》**창조의 불길같은 도의 전 반격정세를 활성화하고 새로운동관개간천투와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 원산선인발전조건설과 원산시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절세위원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우리 당과 공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제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동상들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향일성의 포선전 군복차림 그대로 서서에는 어머니께서도 12월의 눈길을 헤쳐오신 장군님을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는것만 같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어머니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공장과 농촌, 학교와 타미소를 찾아 이 나라 방방곡곡을 다 걸으시면서도 고향인 회령땅만은 빼놓아보지 못하신 어머니, 나라를 찾아온 어머니수령님을 위해 동상을 경건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리움에서 온 음성으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회령시에 오니 어머니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머니의 한숨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 위대한 수령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들의 빛나는 한숨이었습니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 군대책임일꾼들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

【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군대책임일꾼들이 22일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수도 평양에서 열리는 뜻깊은 회의에 참가하게 된 전군 수산부문 열성자들의 긍지와 기쁨이 속에서 차넘치고있었다.

최룡해중장, 리영길중장, 장정남중장과 인민무력부 일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물고기잡이 선투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 하 그들을 축하해주었다.

수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고 하시며 병사들의 식생활개선엔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민들에게 먹일수 있게 최선조치기바들을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계속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회의참가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만전의 배고동소리를 계속 울려나갈것을 당부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뜻을 받들어 만전의 배고동소리를 계속 울려나갈것을 당부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켜 병사들의 식생활향상과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있었다.



**2 면 에서 계속**

기쁨에 넘쳐계시는 장군님께 한 일군이 수많은 환관자들이 여기에 앞보고 이제는 황철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고 무뎠없이 보고 있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둘러보시며 그럴만도 하다고 못내 만족한 어조로 너서시였다.

돌이켜보면 세 세계에 들어와 회령시의 실태에 대하여 깊이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향일의 념정영을 감성속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삼림집문제와 지방산업공정들의 현대화문제를 비롯하여 무려 수십여 차례의 철저한 현지예찰을 실시하고 필요되는 기술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시였다. 그리고 주제98(2009)년 2월 현지지도때에는 몸소 시를 돌아 보시면서 사회과학시설들을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그 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시였다.

그 보살핌에 의하여 시에는 오늘과 같이 현대화된 종합적인 식료 가공기지가 일떠서고 국경도민의 체모에 맞게 임업봉사망들이 정연하게 꾸며져있으며 시내 여러곳에 화려한 불장식까지 완성업적을 회령시인민들이 남이 부러워하도록 보다 문명하고 유숙한 물질문화생활을 즐기는

경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기에 회령시에서 진행된 전국사 회공양부문 방직상장에 참가하였던 일꾼들은 회령시는 벌써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 말들을 여가 회령에 시집보내겠다고 하였으며 회령시민들은 당의 은덕이 너무 고마워 회령시에서 화려한 거리에 펼쳐나와 밤새도록 웃음꽃을 피우는 이색로 평평도 펼쳐져서 되었던것이다.

실로 회령땅에 펼쳐진 전변의 새 령자는 우리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와 각별한 사랑의 령자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께서서는 공정에 맛좋은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대에 공공함으로써 원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고 공정문을 나서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께서서는 공정에 맛좋은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대에 공공함으로써 원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고 공정문을 나서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께서서는 공정에 맛좋은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대에 공공함으로써 원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고 공정문을 나서시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께서서는 공정에 맛좋은 영양가 높은 부식물을 비롯한 식료가공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제대에 공공함으로써 원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고 공정문을 나서시였다.

이날 회령교외야공장을 찾았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베풀어주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된 공장 이 만족하시어 장군님께서서는 어둑어둑한 약초창고에도 둘러 약초마대까지 손수 던져보시며 우리 인민들이 무상 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도록 약품생산에 큰 힘을 내어야 한다고, 공장엔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약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렇듯 회령시민들의 생활을 속속들이 보살피고오셔야 오산덕마루에 높이 모신 향일의 념정영을 김정은동지께서 동상으로 향하시였다.

얼마나 찾고싶었던 회령이었고 얼마나 오르고싶었던 오산덕마루였을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동상이 모셔진 오산덕마루에 선 나의 귀절에는 수십년간 왕새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찾아 온순으로 가지던 중 회령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씀하실 때 그의 가슴에 피고있던 철자의 기적소리가 이 피고있고 그냥 들리우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동상이 모셔진 오산덕마루에 선 나의 귀절에는 수십년간 왕새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찾아 온순으로 가지던 중 회령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씀하실 때 그의 가슴에 피고있던 철자의 기적소리가 이 피고있고 그냥 들리우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어머니의 동상이 모셔진 오산덕마루에 선 나의 귀절에는 수십년간 왕새산혁명사적지건설장을 찾아 온순으로 가지던 중 회령을 눈앞에 두고도 그냥 지나치고 말씀하실 때 그의 가슴에 피고있던 철자의 기적소리가 이 피고있고 그냥 들리우는데 무슨 말이냐고 말씀하시였다.

모습이 우뚝이 떠올랐다.

향일성의 포선전 군복차림 그대로 서서에는 어머니께서도 12월의 눈길을 헤쳐오신 장군님을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는것만 같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어머니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받들어 공장과 농촌, 학교와 타미소를 찾아 이 나라 방방곡곡을 다 걸으시면서도 고향인 회령땅만은 빼놓아보지 못하신 어머니, 나라를 찾아온 어머니수령님을 위해 동상을 경건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리움에서 온 음성으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회령시에 오니 어머니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머니의 한숨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 위대한 수령님 끝없이 충직한 친위전사들의 빛나는 한숨이었습니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두가 격정에 목매어 서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인민들이 어머니의 동상주변을 정성들이 돌리려고 할 판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내(허영이)가 감격에 겨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문득 한 책임일꾼이 방에 들어서며 어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시고 제 축하하는것이였다.

그의 안내를 받아 곁에 오니 달려가 어머니오셨던 장군님을 만나러 오신 장소에 들어선 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력사에는 새로 태어난 새생동지와 남다른 애정으로 애정 어린 사랑을 위하여 사람의 비행기를 띄운 일은 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이렇듯 한 당원들을 위해 특별비행기를 띄우신 사람은 당원들로서는 그이뿐이였다.

나를 뜻이 바라 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에 수백백리의 폐지공장을 꼭 꾸려주셨던 회령시 당위원회와 회령시인민위원회에서는 폐지공장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먹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단정히 이르시였다.

회령시인민들이 지금껏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만도 하늘에 닿았는데도 다시 더 큰 사랑과 은정을 부여주시는 장군님께 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폐지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 회령시에 건설된 봉사망들이 꼭 온 내게 하였습니다.》

내(허영이)가 감격에 겨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문득 한 책임일꾼이 방에 들어서며 어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시고 제 축하하는것이였다.

그의 안내를 받아 곁에 오니 달려가 어머니오셨던 장군님을 만나러 오신 장소에 들어선 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당력사에는 새로 태어난 새생동지와 남다른 애정으로 애정 어린 사랑을 위하여 사람의 비행기를 띄운 일은 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이렇듯 한 당원들을 위해 특별비행기를 띄우신 사람은 당원들로서는 그이뿐이였다.

나를 뜻이 바라 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에 수백백리의 폐지공장을 꼭 꾸려주셨던 회령시 당위원회와 회령시인민위원회에서는 폐지공장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먹을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단정히 이르시였다.

회령시인민들이 지금껏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만도 하늘에 닿았는데도 다시 더 큰 사랑과 은정을 부여주시는 장군님께 나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폐지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 회령시에 건설된 봉사망들이 꼭 온 내게 하였습니다.》

나의 결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에서 폐지공장에서 생산된 물고기를 절대로 다른 부문에 보내지 말고 소관한 시민들에게 가깝게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유서깊은 어머니의 고향도시 회령시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선진국으로 되어 강성국가의 대문턱에 넘겨져 들어서는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을 우리러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 길은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어머니의 한평생의 념원이었던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부흥의 새날을 여기 회령땅에 남기며 안아오며 헤쳐나갈것을 믿고 있는 길이었다.

자원의 겨울은 12월에 시작되지만 회령땅에는 사연깊은 그 12월에 벌써 봄이 온다고 우리들은 믿고있다.

오늘도 이 땅의 새날을 남기며 열리는 진달래를 한몸에 안으신 향일의 념정영을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그이같은 행보를 누려가서 우리 회령사람들을 따듯이 축복하시며 오산덕마루에서 따뜻이 웃으시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나의 결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회령시에서 폐지공장에서 생산된 물고기를 절대로 다른 부문에 보내지 말고 소관한 시민들에게 가깝게 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유서깊은 어머니의 고향도시 회령시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선진국으로 되어 강성국가의 대문턱에 넘겨져 들어서는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을 우리러 높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그 길은 우리 장군님께서 수령님과 어머니의 한평생의 념원이었던 내 나라, 내 조국의 강성번영,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강성부흥의 새날을 여기 회령땅에 남기며 안아오며 헤쳐나갈것을 믿고 있는 길이었다.

자원의 겨울은 12월에 시작되지만 회령땅에는 사연깊은 그 12월에 벌써 봄이 온다고 우리들은 믿고있다.

오늘도 이 땅의 새날을 남기며 열리는 진달래를 한몸에 안으신 향일의 념정영을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그이같은 행보를 누려가서 우리 회령사람들을 따듯이 축복하시며 오산덕마루에서 따뜻이 웃으시었다.

주제 101(2012)년 9월





# 반역 《정권》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지 1년이 지났다. 이것을 계기로 각계층 인민들의 반《정권》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광장에서 로동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야당의 원들, 종교인들을 비롯한 3만여명의 각계층 운동이 보수집권세력의 부정부패와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대규모의 초불집회를 가졌다. 남조선전역으로 번져지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권》투쟁은 지난 1년간 불법적으로 권력의 자리를 타고나고 파쇼독재통치를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심의 분출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중에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힘차게 전개되고있는 대중적인 반《정권》투쟁은 파쇼독재통치의 필연적산물이다.

악업이 있는 곳에서는 항거가 있기 마련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쇼독재통치는 과거 《유신》독재시대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특혜형식기부정행위로 권력의 자리를 타고났을 보수세당은 지난 1년간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하여 통제체제와 폭압기구들을 《유신》독재시기처럼 되살리고 결단사주 근대중국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말살하였다. 사기협잡으로 치른 지난 《대통령》선거의 진상이 드러나는것을 막기 위해 《중복능력검정》소통을 요란하게 벌려서 전보민주주의에 대한 파쇼적탄압이 피는되어 날뛰는 피괴보수세당의 책동을 조보적인 민주주의마져 말할하고 복판판에게도 파국적후과를 몰아왔다. 남조선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 더욱 전락되고 북남대결이 격화되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고조되었다. 이로 하여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보수세당에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과 1년이 되지는 오늘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등을 뺀고 있다. 이것은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절대다수 인민들로부터 버림과 배격을 받

고 극도의 통치위기에 직면해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배척되게 폭압통치에 매달리면서 반인민적악정을 실시하고있다.

사회발전의 추동력인 근로인민대중의 광풍을 거역하고 그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정치로 될수 없다. 남조선에서의 지난 《대통령》선거가 사상 류례없는 판권부정선거, 협잡선거였다는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증명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의 피친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보수세당은 저들의 죄악을 돌리켜보고 인민들의 요구대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부패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건, 언론인건, 종교인건 가릴없이 딱치는대로 《중복》으로 몰아 란악하고있다.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살벌한 《중복》소통을 벌려서 인민대중이 광분하는 피괴배당이 아닐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담을 쌓은 극우극우파를 뽑았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그 무슨 《신피로복스》라는 동족대결정책을 들고나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말로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기회마저 다 망쳐 놓았다.

한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거부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민》모략소동에 갈수록 힘을 부리고있다. 특히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쇼독재소통은 그 비렬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선형독재자들의 당상을 훨씬 통가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중복》소통은 남조선사회의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독로원바와 같이 보수세당은 야당들을 비롯한 각계가 정보원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나서자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통합진보당을 《중복》소통으로 몰아 란악하였다. 파쇼적인 《중복》광풍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집권자와 전공로, 지어는 종교단체들에게까지 휩쓸치고있다.

남조선에서의 지난 《대통령》선거가 사상 류례없는 판권부정선거, 협잡선거였다는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히 증명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현 집권자의 피친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보수세당은 저들의 죄악을 돌리켜보고 인민들의 요구대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부패선거의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건, 언론인건, 종교인건 가릴없이 딱치는대로 《중복》으로 몰아 란악하고있다.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살벌한 《중복》소통을 벌려서 인민대중이 광분하는 피괴배당이 아닐로 민주주의와 인권과 담을 쌓은 극우극우파를 뽑았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면서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피괴보수세당은 그 무슨 《신피로복스》라는 동족대결정책을 들고나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말로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른바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의 기회마저 다 망쳐 놓았다.

한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리행을 거부하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민》모략소동에 갈수록 힘을 부리고있다. 특히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파쇼독재소통은 그 비렬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선형독재자들의 당상을 훨씬 통가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중복》소통은 남조선사회의 파쇼화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반역한 인간쓰레기들과 극우보수단체들을 비롯한 파쇼파쇼소통 등을 계속 벌리면서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악의에 차서 헐뜯고 《폐쇄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말악하고있다.

남조선보수세당이 《유신》독재부활과 동족대결정책에 미쳐날뛰는 극우파들의 분노는 더욱 세차게 폭발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반《정권》투쟁은 대중적성격을 띠고 날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하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내용의 벽보들이 도처에 나붙어 각계의 반《정권》투쟁기운을 고조시키고있으며 종교인들도 집권자의 피친을 요구하며 벌쳐 나가고있다.

철도근로자의 대규모파업도 보수《정권》의 통치기반을 뒤흔들고있다. 이런 속에 현 남조선집권자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보수세당내부에서도 집권자에 대한 비난과 조소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지난 시기 집권자의 측근도 있던 인물들이 현이기에 그에게 등을 돌려대고있는것도 심각한 통치위기의 변명이다.

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고 극도의 위기에 빠진 반역세당은 파쇼독압의 강화에서 출로를 찾고있다. 하지만 독재통치는 집권위기를 해소하는 고사하고 더욱 심화시키게 될것이다. 력사가 보여 주듯이 파쇼독재에 매여달린 피괴통치배들의 운명은 언제나 비참하였다.

파쇼독재자들은 결코 단언이 아니며 피괴보수세당의 그 어떤 탄압강도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당국의 악랄한 탄압책동에 분노하고 조공도 굴하지 않고있는것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결사의 의지를 표시하고있다.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반역책동에 미쳐날뛰는 피괴보수세당은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값비싸게 치르게 될것이다.

최철순

# 잡지 《통일》 11월호 발행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11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도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집중편찬하였다.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전공로 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편집하였다. 《원수님과 어린이들》이라는 표제를 달고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다. 또한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울린 편지들을 모으고 보아주시고 친필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어 주신 내용을 소개하였다. 잡지는 이밖에 로씨야와 국제 소식들을 소개하였다.

#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폭압체통을 당장 중지하라

## 재로동포단체회장 담화 발표

로씨야연방 연해변각 빠르제 안스크시 조선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이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고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11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경제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도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집중편찬하였다.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전공로 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편집하였다. 《원수님과 어린이들》이라는 표제를 달고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계시는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다. 또한 경제에 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재능있는 어린이들이 울린 편지들을 모으고 보아주시고 친필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어 주신 내용을 소개하였다. 잡지는 이밖에 로씨야와 국제 소식들을 소개하였다.

#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폭압체통을 당장 중지하라

## 재로동포단체회장 담화 발표

로씨야연방 연해변각 빠르제 안스크시 조선민족문화자치회 회장이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유신》독재부활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단죄하였다. 남조선사회가 민주화되고

#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요구

일본정부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불중지에 항의하여 11일 아마쿠제현보조금지불에 의한 학교가 현청의사정에서 집회를 가졌다. 아마쿠제현의 동포들과 현의 회의원들, 20개 단체 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편집물 《지키자! 우리 학교-아마쿠제의 투쟁》이 상영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정치를 반대하여 인민들은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바라고 민주화를 요구하는것은 정당하며 절대로 탄압의 구실이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파쇼적인 폭압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폭압

# 성노예범죄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주장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8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1105차 수요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은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러온지 20여년이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의 과거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문서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아직까지 성노예강제연행사실을 부정하며 침략역사를 외국화하고있다 규탄하였다. 최근 일본정부가 평화헌법을 접차 무력화하면서 《집단적자위

# 피괴경찰 통합진보당 성원의 집을 강제수색

현권대(실천연대)와 서울민권연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북의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하였다 하는 혐의로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려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날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은

# 일마전 남조선당국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여 총파업을 선언한 철도

선거당시 민영화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정권의》 자리에 오른 보수세당은 인민들과 한 약속들을 헌신적처럼 깨버리고 제법들을 운호하는 반역정책을 일삼으며 경제와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있다. 더구나 철도민영화책동에 호하여 남조선의 철도산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철도노동자들에게는 실업과 빈곤만이 차례진 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철도민영화책동을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은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철도노동자들을 달래는 한편 그들의 파업을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중지하라고 강박해왔다. 한편 파업을 중지하지 않겠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발방하였다. 피괴경찰은 철도로조집행부원형들을 《업무방해행위》로 체포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우놓았다.

피괴당국의 위협공갈이 계속되고있지만 철도노동자들은 조공도 굴하지 않고 완강한 파업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현 《정권》이 등장하기 전부터 남조선 각계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보수세당은 이것을 악용하여 지난 《대통령》

#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파업투쟁

투쟁으로 대항해나갔다. 《철도투쟁을 사수하라》는 호호임을 띠고 계속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철도운수는 혼란속에 빠져들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철도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으며 현청들에서는 석탄과 세멘트를 비롯한 원자재들이 수송되지 못하여 아우성이다. 엄청난 대적으로 철차사고까지 일어났다.

남조선당국이 철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관심이 없다고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피괴당국과 철도공사측은 비상상황을 현상에서 투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괴경찰은 17일 철도로조에 대한 견력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였으므로 철도로조위원장 등 로조핵심성원 10명을 체포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를 중지하지 않는 한 파업을 계속하였다 이것이 남조선철도노동자들의 확고한 의의이다. 철도로조는 이미 민주로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이 철도민영화를 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그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더욱

다운한 투쟁을 벌여나갈것을 약속하였다. 민주로총은 수석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철도로조위원장에게 항하여 민주로총지 역별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철도파업소령》, 《로조탄압분쇄》의 요령을 제시한 시위행위와 초불집회를 가졌다. 피괴당국의 강경진압위협속에서도 이들의 투쟁은 지금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철도로조는 보수당국의 악랄한 탄압책동에 대처하여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벌릴것을 선언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도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를 벌리면서 철도로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반역통치배들의 악정에는 오직 투쟁으로 맞서야 하며 투쟁속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도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것은 철도노동자들은 탄압을 이겨내며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보원대선개입소문》으로 소란한 남조선정국을 더한층 긴장시키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명수단도 드러내지 계속 독재와 폭압에 매달린다면 《정권》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게 될것이다. 권영국



관권부정선거무효, 박근혜퇴진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집회

# 오늘의 세계

한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비렬한 정보정탐행위를 폭로하는 자료들이 출판보도물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네틀랜드신문 《엔아르세》는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씨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이 1946년부터 1968년까지 이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도청행위를 감행한대 대해 밝혔다. 또한 신문은 미국이 1946년부터 동맹국인 벨기에와 도이쾰란드, 프랑스 등 서유럽나라들을 대상으로 도청행위를 하였으며 2012년 중엽에는 세계적범위에서 5만여대의 컴퓨터를 공격하여 정보를 빼낸대 대해 단죄하였다.

노르웨이신문 《다그블라데트》는 미국간첩보장국이 자국인민이 주고받은 3300만회의 전화도를 도청하고 단죄하였다. 튀르키예신문 《예니 사파크》는 미국간첩보장국이 캐나다정보기관과의 협동에

2010년 20개국수뇌자회의는 물론 참가국지도자들을 상대로 도청행위를 벌였다고 폭로하였다. 얼마전에는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안건보장국이 전세계의 휴대전화기록을 매일 수집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량은 하루 50억건에 달하는 방대한것으로서 통화상태를 파악하는것과 함께 리용자의 위치까지 추적할수 있다고 한다. 신문은 자국의 정보기관들이 획득한 휴대전화회의 암호무력화기술에 의해 도청과 추적 가능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누구보다 인권존중에 대해, 명명사외에 대해 떠들던 미국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세계앞에 시시각각 자기의 드러낸 몰골을 지어지고 드러내고있다. 은 인류가 미국의 불법적인 전자정탐행위에 전철하고있다.

미국의 전자정탐행위의 엄중성은 우선 국가수반들을 목표로 하고있다는데 있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감시와 도청은 곧 국가주권침해와 냉정에 대한 간섭행위로 해당 나라의 존엄에 대한 침수수 없는 모독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반쪽한 유린행위로 만다. 사생활권리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의 핵심사항이다. 세계와 인류를 목표로 개인들의 사생활권리를 무참히 침해하고있다는데 미국의 전자정탐행위의 또 다른 불법성과 범죄성이 있다. 미국간첩보장국이 《프리즐》이라는 비밀전자감시계획에 따라 다른 나라 공민들의 통신을 장기간 도청하고 해해수십억건의 자료를 걸취, 수집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렐렌부터 자국내 인민들까지 도청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규탄을 받아온 아메리카제국이 오늘은 전세계를 전자감시망으로 뒤덮고 정탐해오고있는 사실은 미국이 야말로 인권의 초보적인 규범도 준수하지 않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간첩보장국이 《프리즐》이라는 비밀전자감시계획에 따라 다른 나라 공민들의 통신을 장기간 도청하고 해해수십억건의 자료를 걸취, 수집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렐렌부터 자국내 인민들까지 도청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규탄을 받아온 아메리카제국이 오늘은 전세계를 전자감시망으로 뒤덮고 정탐해오고있는 사실은 미국이 야말로 인권의 초보적인 규범도 준수하지 않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미국간첩보장국이 《프리즐》이라는 비밀전자감시계획에 따라 다른 나라 공민들의 통신을 장기간 도청하고 해해수십억건의 자료를 걸취, 수집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렐렌부터 자국내 인민들까지 도청행위를 감행한것으로 하여 규탄을 받아온 아메리카제국이 오늘은 전세계를 전자감시망으로 뒤덮고 정탐해오고있는 사실은 미국이 야말로 인권의 초보적인 규범도 준수하지 않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 히토류분쟁에 비껴 모순과 리해관계

중국을 일방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동맹이 타방으로 한 히토류분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히토류수출과 수입국사이의 싸움이기도 한 분쟁은 얼마전에 나온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계기로 보다 첨예화되고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히토류수출제한조치가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수입국들의 제소를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중국이 현재의 히토류수출제한조치에 수입국들은 물론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무질서한 채취와 생태환경의 파괴, 녹은 가격의 수율은 중국 히토류산재의 약 80%로 된것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2014년 상반기의 히토류수출제한을 발표하였것이다. 그 량은 올해 하반기의 할당량보다 2.5% 적은것이다. 중국상무부는 이번에 발표된 할당량 2014년도 히토류수출량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도 중국의 히토류수출량은 늘어난것이 아니라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쯤 되고 보면 제소측들의 심기가 어떠한가. 이로써 해를 넘기며 벌어지는 히토류분쟁이 수입국들의 의대로 막을 내리려는듯 하였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였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2014년 상반기의 히토류수출제한을 발표하였것이다. 그 량은 올해 하반기의 할당량보다 2.5% 적은것이다. 중국상무부는 이번에 발표된 할당량 2014년도 히토류수출량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도 중국의 히토류수출량은 늘어난것이 아니라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쯤 되고 보면 제소측들의 심기가 어떠한가. 이로써 해를 넘기며 벌어지는 히토류분쟁이 수입국들의 의대로 막을 내리려는듯 하였다.

로씨야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히토류의 수출제한은 중국 정부의 경제현대화전략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하면서 중국은 이번에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미국, 유럽동맹, 일본의 회담에서 본사기자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사실상 많은 분석가들은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이 중국의 리익에 저촉되는것으로서 중국이 이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보고있다.

중국 히토류매장장에 있어서 생산한것이 아니라 첫자리를 차지한다. 중국은 세계히토류시장의 95%를 통제하고있다. 최근년 중국의 히토류수출제한조치에 수입국들은 물론 세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무질서한 채취와 생태환경의 파괴, 녹은 가격의 수율은 중국 히토류산재의 약 80%로 된것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2014년 상반기의 히토류수출제한을 발표하였것이다. 그 량은 올해 하반기의 할당량보다 2.5% 적은것이다. 중국상무부는 이번에 발표된 할당량 2014년도 히토류수출량의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결국 매년도 중국의 히토류수출량은 늘어난것이 아니라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쯤 되고 보면 제소측들의 심기가 어떠한가. 이로써 해를 넘기며 벌어지는 히토류분쟁이 수입국들의 의대로 막을 내리려는듯 하였다.

# 히토류분쟁에 비껴 모순과 리해관계

보다 잃는것이 더 많을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집들을 바로잡고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히토류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것이 세를목 내세우는 히토류수출정책의 목표라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히토류분쟁에서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풍부한 히토류자원을 갖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자원 없이 얻을 수 있는 일부 자원의 그릇된 처사이다. 미국의 히토류자원에 매장량이 적지 않다. 1990년대초에 히토류시장에서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는 우연하지 않다. 예제날 히토류수출국이었던 미국이 오늘날 수입국으로 된것은 결코 자원의 고갈에 의한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용도가 높아지는 전략자원을 보호할 리기적라 산물에 히토류체취를 극력 줄이고 생산들을 대체한데 있다. 그러고는 《부족되는 수요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자원정탐에서 찾고있다.

최근 세계적인 히토류매장장에 중국의 제취가능한 히토류매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로부터 52%로 떨어졌다. 갈수록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히토류분쟁에는 중국에 대한 사방의 불신과 경제성이 깊숙이 내재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언젠가 중국의 동소정은 중국 동인원유를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세계히토류시장의 독점권을 쥐고있는 중국이 이것을 위력한 정치경제적지배대로 활용하고있다고 사방은 보고있다. 2010년 9월 저마평명수권을 주장하고있는 핵에서 중국선과 일본해상보안청 순시국이 충돌하여 쿠로노 뱡항했던 중립판관이 예측을 뒤집고 조용히 풀린 리면에는 중국의 강력한 《히토류외교》가 깔려있다고 그들은 분석하고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수출을 중지하자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일본으로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순응하였는것이다. 사방은 더러운 저들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히토류수입국들이 수입의 다각화를 추진하고있는것은 그러한 내시의 변명이다. 하지만 당장은 중국의 히토류자원을 활용으로 대량적으로 받아들여 자국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자원고갈을 촉진시키자는것이다. 중국의 《히토류주제자》를 무력하게 만들자는것이 다. 이러한 견해의 공통점으로부터 출발한 사방의 반중국공세가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것은 의심할바다.

현시기 나라들사이의 정치, 경제적모순과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히토류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것은 시기상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본사기자 배금희